

새해 첫 주말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거리로 나온 도민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025년 새해의 첫 주말에도 전북도민들은 거리로 나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오후 4시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

새해 첫 주말이기도 한 이날은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인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가 열린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촛불집회의 필수품이 되버린 응원봉과 손팻말, 깃발 등을 지참하고 거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수습된 것이 없는 정국에 분노한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손팻말을 치켜들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촛불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다소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다.

본격적 집회가 시작되기 전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도 ‘이태원 참사’라는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유가족이었다.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그는 “여객기 참사 장면을 뉴스로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은 희생자들



새해 첫 주말인 지난 4일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이 노래에 맞춰 손을 치켜들고 있다.

전북에서尹 탄핵 촛불집회 한달째 진행 중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위한 묵념·분향소 설치도

의 가족분들이었다”며 “그들은 당시 참사를 잊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날 밤의 이태원 거리가 매일 생각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한다. 지금 정부에 이름을 붙이면 ‘참사 정부’라고 불리고 싶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홍수 피해, 오송 참사, 채산병 사건, 여객기 참사 등이 일어났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한 이런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거리의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발언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도로 옆 간이 천막에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간이 분향소도 설치돼있다.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은 물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도 발길을 돌려 분향소에서 조의를 표했다.

김씨는 “탄핵안 1차 부결, 2차 가결 때 여의도 국회로 직접 갔고, 전주에서 집회를 참석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공권력이 집행할 것을 믿고 집회를 안 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지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 윤석열부터해서 그를 비호하려는 세력들은 보수를 넘어 완전히 왕정국가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퇴진운동본부와 시민들은 예정된 집회가 종료되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까지 행진해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

민주 정동영 의원, 작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 1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억원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원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이 배정됐다.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암 1동 금암초 인근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특교세 5억원이 배정됐다. 노상주차장이 폐지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끊이지 않았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은 호우·태풍 등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교 3억원이 배정됐다.

산정동 보행자길 조성사업은 특교 2억원이 배정돼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증진 위해 하천 부지 내 보행자길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우이2동과 산정1길 일원, 보도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이동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문제됐다. 이번 개선사업으로 목재 데크 설치 등 거리미관과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제안특교로는 소양교 내진 보강 공사 사업으로 7억원이 배정됐다. 소양교는 2023년 집중안전점검에서 내진 1등급급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설치된 고력활동반침으로는 이동 여유량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탄성고무받침으로 교체해 내진성능 보강이 기대된다. /김욱기 기자

전북자치도 신임 대변인 공개 간담회 ‘눈길’

김철태 대변인, 올림픽 실사 등 주요 현안 설명... 도민 알 권리 해소 이바지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대변인이 바뀐 이후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끈다.

지난 1일자로 고창군 부군수에서 도청 대변인으로 취임한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지방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대한체육회의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관련 실사가 전북에서 6일과 7일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가 3일 오후 2시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사전 브리핑과 리허설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PT는 김관영 지사가 직접 개최지 실사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3일 오전 현재).

이어 지난 2일 김 지사와 도청 주요 간부들이 국가 예산 발굴고회를 가졌는데 전년 대비 1천억 원 정도가 과소 발굴되어 각 실·국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연구 노력해 전년도 수준이 넘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법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도청 자체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 산하 출연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협의도 하고, 타 시도의 사업발굴시스템도 좀 벤치마킹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에 열리는 추가 발굴보고회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사업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들도 있으니 이러한 사업은 기존 논리대로 하면 반영이 되지 않으니, 반영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하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 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굴된 사업들은 미리미리 국가 예산 확보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해 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도 하고 해서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각 부처 예산이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의 상의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신임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도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서 양쪽작전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예산확보에 공이 큰 직원과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반드시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에는 경제부지사가 전북도가 특례 도인 점을 잘 활용해 재정 우선지원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발굴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 우리 전북 출신 희생자 장례식과 관련해 남원에서 치러진 장례식에서 유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김 지사가 직접 조문을 다녀왔다면서 앞으로도 익산과 전주에서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유족 장례식에 직접 가서 조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김철태 대변인의 이번 기자회견은 참신한 시도도 보이며, 기자들의 취재 갈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이러한 백 브리핑을 통해 밀실 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민주, 내란 특검법 등 처리 위해 7~10일 본회의 여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8개를 ‘실리미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오른만큼 다시 특검법 통과 등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7~10일 연속해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러한 구상을 전날(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국회 재의결이 요구된 법안 8개를 재표결에 부쳐 ‘쌍특검(내란·김건희회특검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서 여객기 참사로 취소된 대정부질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11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초청음악회

•일시: 2025. 1. 9~10. (목~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참가문의: 063-288-9700(전주매일신문 본사)

 사회자 송미령	 명창 김민석	 색소피니스트 박보성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송난영	 첼리스트 김인하